

단어구조의 측면에서 본 조선어부사의 몇가지 특성

정래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휘가 풍부하고 문법이 짜여있기때문에 우리 말과 글로는 어떤 사상적내용이나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도 정확하고 풍부하게 표현할수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30페이지)

조선어는 풍부하고 섬세한 어휘의미와 치밀한 문법구조를 가진 세상에 자랑할만 한 참으로 우수한 언어이다.

언어생활에서 활발하게 쓰이고있는 부사는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특별히 잘 보여주는 품사들중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량적으로 그 어느 언어보다 풍부할뿐아니라 특색있는 구조를 가지고있는 조선어부사의 몇가지 특성을 단어구조의 측면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그 특성은 무엇보다먼저 부사들속에 말뿌리결합형이 대단히 많은것이다.

물론 부사들속에 단순말뿌리로만 이루어진것도 있다.

례 : 빨리, 더, 참, 그만, 어찌, 오직, 정녕, 설마, 진정, 만일, 설마, 꼭, 부디, ...

이외에 부사들속에는 말뿌리결합형이 있는데 그 량은 단순말뿌리에 비해 대단히 많다.

말뿌리결합형은 두개이상의 말뿌리로 이루어진 부사들을 의미한다.

우선 서로 다른 말뿌리로 결합된 부사들이 있다.

말뿌리들을 두개이상 합치는 경우 원래의 부사,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등의 말뿌리끼리 또는 서로 다른 품사의 말뿌리들끼리 합쳐지면서 부사로 넘어간다.

부사+부사

례 : 또한, 더 빨리, 더더욱, 곧잘, 모두다, 곧바로, 좀더, 죄다, 그저그만, ...

명사+부사

례 : 하루빨리, 가슴깊이, 때마침, 한시바삐, ...

대명사+부사

례 : 저멀리, 제절로, 제아무리, ...

대명사+명사

례 : 그길로, 제바람에, 제깎에, ...

부사+동사

례 : 간혹가다, 제각하면, 설마한들, 특하면, ...

관형사+명사

례 : 어느새, ...

또한 어음구성이 똑같거나 비슷한 말뿌리들이 결합된 부사들이 있다. 이것을 일명 말뿌리결합형의 한 형태인 말뿌리반복형이라고 할수 있는데 대체로 상징부사들이 여기에 속한다.

례 : 산들산들, 어기적어기적, 굵이굵이, 철렁철렁, 퐁기적퐁기적, 동글동글, 팔팔,

짜르릉짜르릉, 번쩍번쩍, 덜커덕덜커덕, ...

조선어부사들가운데서 상징부사가 특별히 많은데 이것은 세계 그 어느 나라 언어들을 놓고보아도 매우 드문것으로서 조선어의 우수한 민족적특성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언어적 현상의 하나이다.

상징부사들가운데는 《하하, 호호, 멍멍, 야옹, 웅가당, 칙칙폭폭, 푹푹탁탁》 등과 같이 사람이나 짐승, 어떤 물체 등이 내는 소리를 본따서 만든 소리본딤말들도 있고 사람과 짐승, 사물현상의 상태나 움직임, 성질 등의 다양한 측면들을 말소리로 모방하여 나타내는 《어기적어기적, 성큼성큼, 하들하들, 선들선들, 설레설레》와 같은 모양본딤말들도 있다.

상징부사의 다양성과 우수성은 대상의 소리나 모양의 각이한 양상들뿐아니라 대상, 현상들간의 미세한 차이, 사람들의 감정정서적느낌의 미묘한 빛깔까지도 잘 드러내어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섬세한 표현체계가 매우 치밀하게 발달되어있는데서도 나타난다.

상징부사의 기본구성단위는 다른 보통의 단어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형태부이다.

그런데 상징부사의 구성요소로 되는 형태부들은 거의다 말뿌리적인 성격을 띠는것들이 반복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조선말대사전》(1992년판)에는 7 477개의 상징부사들이 올라있는데 그중 말뿌리가 반복된것은 4 634개로서 사전에 오른 총 상징부사량의 61.9%에 달한다.

이때 말뿌리들은 꼭같은것들이 반복되는것이 기본이면서 때로는 어음구성상 서로 비슷한 말뿌리들이 반복되기도 한다.

례 : 반짝반짝, 텀벙텀벙, 꾸벅꾸벅, 주땃주땃, 버적버적, 덜컹덜컹, 수군수군, ...

례 : 알락달락, 어슷비슷, 울긋불긋, 시뚝새뚝, 안절부절, 울쑥불쑥, 오물꼬물, ...

반복형의 상징부사조성에 참가한 말뿌리들을 보면 그것이 형태부로서의 표식을 충분히 갖추고 다른 단어들의 파생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완전한 형태부로서의 성격을 갖춘것도 있고 부사로는 쓰이지만 다른 단어의 파생에는 참가하지 않는 불완전한 형태부의 성격을 가진 말뿌리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형태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두가지이다.

첫째로, 각이한 언어환경에서도 늘 같은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는 의미적일관성이다.

둘째로, 단어의 구성요소로서 문리적으로나 언어관습적으로 허용하는 한에서는 여러가지 단어구성요소들과 결합되어 쓰일수 있다는 분포의 다양성이다.

이러한 두가지 요구를 다 갖춘 형태부를 완전한 형태부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불완전한 형태부라고 할수 있다.

레컨대 부사 《반짝반짝》에 참가한 말뿌리 《반짝》은 그것이 《작은 빛이 갑자기 잠깐동안 빛나는 모양》이나 《무엇이 순간적으로 얼른 잠깐 나타나는 모양》, 《가볍고 빠르게 쳐들어올리는 모양》 등을 나타내면서 혼자서 부사로 쓰일수도 있고 때로는 《반짝하다, 반짝거리다, 반짝이다, 반짝대다》에서와 같이 《-하다, -거리다, -이다, -대다》와 결합하여 새로운 동사들도 파생시킬수 있는것이다.

례 : 아이는 알았다는듯 얼굴을 반짝 쳐들었다.

례 : 사람은 한순간 반짝하는것보다 한생을 별처럼 빛을 뿌리며 땅을 따라 언제나 빛나게 살아야 한다.

례 : 반짝이는 별의 밤하늘가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랑랑히 울리어간다.

그러나 부사 《안절부절》이나 《울긁불긁》에 참가한 말뿌리들은 그것만으로써는 여러 가지 문장에 독자적으로 쓰일수 없을뿐아니라 새로운 단어의 구성에도 거의 참가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상징부사 《반짝반짝》은 완전한 형태부들의 반복으로, 《안절부절》, 《울긁불긁》 등은 불완전형태부들의 반복이라고 할수 있다.

그 특성은 다음으로 부사들이 조선어에 고유한 어음체계의 우수성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조선어는 자음체계에서 순한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대립이 뚜렷한 3류음체계를 가지고있으며 모음체계도 밝은모음과 어두운모음의 대립이 아주 강하므로 소리느낌을 매우 섬세하게 구분하여 표현할수 있는 우수성을 가지고있다.

말소리에 대한 소리느낌은 사람들이 말소리의 성질 즉 말소리의 음향학적특성에 대하여 가지는 일종의 감성적평가이다.

자음에서 《ㄱ, ㄷ, ㅂ, ㅅ, ㅈ》와 같은 소리는 순하게, 《ㅋ, ㅌ, ㅍ, ㅊ》와 같은 소리는 거세게, 《ㅍ, ㅌ, ㅂ, ㅅ, ㅈ》는 되게 들리며 모음에서 《ㅏ, ㅗ》와 같은 낮은모음은 밝게, 《ㅓ, ㅕ》와 같은 높은모음은 어둡게 들린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을 이루는 조선어에서 자음과 모음은 대상,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과 평가를 아주 섬세하게 나타내며 한편 말소리 전반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울리게 해주는 요인의 하나로 된다.

부사들가운데서도 특히 상징부사가 이러한 조선어의 어음체계상의 특성을 가장 뚜렷이 실현하고있다.

— 자음 3류음체계의 대립을 보여주는 부사들

례 : 골골—꼰꼰—꼰꼰, 덩—텅—뎡, 둥둥—통통—똥똥, 붕—퐁—뽕, 보동보동—포포동—뽕동뽕동, 줄줄—출출—쭈쭈, …

— 밝은모음과 어두운모음의 대립을 보여주는 부사들

례 : 딱—땡—뚝, 살살—설설—술술, 하하—허허—호호, 발쭉발쭉—벌쭉벌쭉, 갈갈—골골—겉겉—겉겉, 꼬깃꼬깃—꾸깃꾸깃, 움지락움지락—움지락움지락, 쿵당쿵당—쿵당쿵당, …

그 특성은 다음으로 부사들은 토를 달지 않고 쓰이는것이 원칙이지만 일부에서 형태구조상 필수적으로 토를 달고있으며 때로는 문장실현과정에 토를 달고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형태를 반드시 취하는 형태어들 즉 체언이나 용언과는 달리 부사는 토를 달지 않고 쓰이는것으로 하여 관형사와 함께 무형태어로 불리운다.

례 : 모두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만리마기수가 되자!

례 :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누구나 다 만리마를 타고 넵다 달려야 하루빨리 천하제일강국을 건설할수 있다.

그러나 일부 부사들은 자기의 구조안에 필수적으로 토를 달기도 하고 원형에서는 비록 토를 달지 않더라도 문장속에서 실현될 때에는 《빨리도 왔구나.》에서와 같이 토를 달고 쓰이기도 한다.

토를 단 부사들속에는 부사로부터 만들어진것도 있고 명사나 대명사, 동사를 비롯한 다른 품사들에 토가 붙으면서 이루어진것도 있다.

— 부사로부터 만들어진것

례 : 어망중 → 어망중에, 참 → 참으로, 정말 → 정말로, 꽤 → 꽤나, 장차 → 장차로, 종당 → 종당에, ...

— 다른 품사로부터 만들어진것

○ 명사 → 부사

례 : 날 → 날로, 때 → 때로(는), ...

○ 대명사 → 부사

례 : 이 → 이에, 언제 → 언제나, ...

○ 동사 → 부사

례 : 그러다 → 그러나, 죽다 → 죽도록, ...

○ 형용사 → 부사

례 : 그렇다 → 그렇듯이, 적다 → 적어도, 적으나마, ...

○ 관형사 → 부사

례 : 새 → 새로, 별 → 별로, ...

○ 감동사 → 부사

례 : 여봐라 → 여봐란듯이, ...

부사조성에 참가하는 토들로는 체언토인 경우에는 일부 격토와 도움토들이며 용언토인 경우에는 일부 접속토, 상황토, 맺음토들이 있다.

례 : 참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심장의 그 웨침은 오늘도 우리의 천만군민을 원쑤격멸의 격전장으로 불러주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올려퍼지고있다.

례 : 하지만 시대의 기상과 전진은 일떠세운 창조물의 높이나 크기에만 비끼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아올린 창조자들의 정신과 위훈으로 하여 더욱 가치를 가진다.

조선어에서 토를 달고 조성된 부사들을 몇가지 례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체언토를 달고 조성된 부사들

례 : 종당에, 때문에, 얼김에, 결김에, 제풀에, 삽시에, 순식간에, 저절로, 성심성의로, 새로, 참으로, 장차로, 저리로, 정말로, 좀처럼, 모처럼, 아무나, 실은, 혹은, 땀은, 또는, 아마도, ...

— 용언토를 달고 조성된 부사들

례 : 뒤미처, 이어, 그리하여, 설마하여, 가다, 어찌다, 어찌다, 어찌다가, 이윅고, 정녕코, 불피코, 결단코, 한사코, 기필코, 기어코, 단연코, 한즉, 그러나, 허나, 하거늘, 이를테면, 걸핏하면, 어찌면, 아무려면, 저렇듯, 여봐란듯이, 될수록, 할수록, 뻔질나게, 죽도록, 어딘가, ...

부사조성에 참가하는 체언토들속에는 여격토 《에》형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조격토 《로/으로》형이며 《만, 마다, 나, 도, 는/은, 처럼》등의 도움토를 취한 경우이다. 도움토를 취한 경우는 격토를 단것에 비하면 훨씬 적다.

한편 부사조성에 참가하는 용언토들속에는 접속토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상황토이다.

부사조성의 구조상특성은 파생구조에서도 찾아볼수 있는데 파생부사들속에서 기본은 뒤불이 《이/히》에 의한 구조이고 기타 다른 비자립적인 형태부들의 첨가로 이루어진것들이다. 파생부사조성에서는 앞불임법보다 뒤불임법이 더 발달하였다.

— 앞불이를 가진 부사

례 : 외따로, 드높이, ...

— 뒤불이를 가진 부사

례 : 깨끗이, 반듯이, 방긋이, 새로이, 소복이, 열렬히, 충실히, 용감히, 마침내, 종내, 끝내, 여름내, 끝끝내, 겨우내, 분주스레, 복스레, 조심스레, 다정스레, 힘껏, 욱심껏, 마음껏, 재간껏, 성의껏, ...

부사조성에 참가하는 《이/히》를 비롯한 뒤불이들은 고유어요소로서의 자기의 고유한 성격으로 하여 비록 그앞에 오는 말뿌리들이 한자말과 같은 외래적요소들이라고 하더라도 새로 조성되는 단어전체를 우리 말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례 : 극(極)+히 → 극히, 열렬(熱烈)+히 → 열렬히, 정성(精誠)+껏 → 정성껏, 열성(熱誠)+스레 → 열성스레, ...

앞으로 조선어부사에 대한 연구를 여러 측면에서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조선어의 우수한 민족적특성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상징부사, 반복형